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파키스탄 (PAKISTAN)

기독교 박해지수
8위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1947년 독립 이후 이슬람 공화국 파키스탄은 무슬림 국가이다. 역사적인 교회들은 상대적인 자유를 누리지만, 엄격하게 감시되고 폭탄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다. 마지막 큰 공격은 2017년 12월 퀘타에서 일어났다. 선교와 청소년 활동에 더 적극적인 교회들은 심각한 권리 침해를 겪고 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도화된 차별을 겪으며, 구인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당국은 천하고 더럽게 여기는 직업은 기독교인의 전유물로 여깁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가난하며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강제노동의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도록 강요받거나 고용주에 의해 아동 결혼을 강요 받는 경우가 있다. 강제노동 상황에 있는 기독교 소녀들은 고용주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나라의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은 종교적 소수자들(무슬림 소수자 포함)을 겨냥한다. 2023년 8월에 21개의 교회를 파괴하고 수백 명의 기독교인을 강제로 이주시킨 자란왈라 사건은 신성모독법으로 인한 폭력의 한 예이다. 신성모독법을 사용하여 기독교인(및 무슬림 소수자)을 겨냥하는 추세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급진적인 이슬람주의 단체들(그들을 배교자로 보는)과 가족, 친구, 이웃들(개종을 배신 행위로 보는)로부터 종교 자유 침해의 주된 피해를 입는다.

파키스탄 (PAKISTAN)

국가 정보

지도자 : 세바즈 샤리프 총리

인구 : 245,210,000 명

기독교인 수 : 4,526,0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연방 의회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526,000	1.8
무슬림	233,815,000	95.4
힌두교	3,413,000	1.4
기타	2,568,000	1.0

출처²

파키스탄은 불안정한 정부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세 번의 장기 군사 통치 단계를 겪었고, 가장 최근의 군사 통치는 2008년에 끝났다. 군대는 정치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군 지도자들은 전 총리 임란 칸이 군사 임명을 지연시키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인내심을 잃었고, 2022년 4월에 그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세바즈 샤리프가 새로운 총리

가 되었고, 즉시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2023년 8월 7일, 전 총리 임란 칸은 부패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24년 2월 8일 선거는 결론이 나지 않은 투표 결과를 초래하여 정치적 연합에 대한 명확한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다. 선거 며칠 후, PML-N과 PPP는 집권 연합을 구성했다. 2024년 2월에 구성된 연합 정부는 소수 정부로, 감옥에 있는 임란 칸이 이끄는 파키스탄 테흐리크-에-인사프 당이 의회에 대표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하면서 더욱 약화되었다. 임란 칸은 파키스탄이 이슬람 무장 단체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최근 한 가톨릭 주교가 설명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의 대표성은 이 소수자의 필요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96%가 무슬림이며, 그 중 다수는 수니파 전통을 따른다. 헌법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이슬람의 영광"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을 받는다.

¹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²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기독교인은 인구의 2%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성모독 혐의의 약 4분의 1의 피해자이다. 사업 경쟁자들은 기독교인 남성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하여 그들의 사업과 명성을 파괴하려 한다. 또한,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지위의 직업을 차지하며, 도로 청소부나 하수구 청소부를 의미하는 경멸적인 단어인 "쓰레기"로 불린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불안정한 치안 상황과 높은 수준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지역 유력자들을 달래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법원, 적어도 상급 법원은 이 점에서 약간 더 나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을 판결할 위치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종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받는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종교적 풍토는 특히 소수 종교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차별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명 이상의 기독교 및 힌두교 소녀들이 납치되어 강제로 개종하고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 기독교 여성들은 납치, 강제 개종, 강제 결혼의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통한 신부 인신매매가 큰 문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상쇄하는 것은 많은 희생자들이 파키스탄의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명예 개념에 덜 둘러싸여 있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덜 보호받는다. ...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파키스탄의 가난하고 소외된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파키스탄이 이 문제에서 주의를 돌리기 쉽게 만들었다." CREID 보고서(2020, p.55)에 따르면, 이념적으로 표적이 된 성적 학대는 종교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성적 착

취뿐만 아니라 다수 종교로 소녀를 '정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편자브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박해, 차별 및 불관용 사건이 그곳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편자브 주 옆에 있는 신드 주도 강제 노동의 중심지로 악명이 높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해외 기독교인들은 강제로 고립되지는 않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교회 출석은 주로 도시에 제한된다. 해외 기독교인들은 높은 압력을 받지만, 그 수는 적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로마 가톨릭 교회와 파키스탄 교회(성공회 교회)는 이 범주의 예이다. 파키스탄 교회는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및 기타 교회를 통합하는 역사적인 교회들의 초교파적 그룹이다. 가장 눈에 띄는 교회들로서, 이들은 모임 허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구성원들의 납치나 강제 개종 등의 적대 행위를 점점 더 많이 겪고 있다. 이들은 통제와 감시를 견뎌야 한다. 특히 도시에 있는 역사적인 교회들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개발업자와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특히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와 개종을 수치스러운 배신 행위로 간주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로부터 종교적 자유 침해의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힌두교 배경에서 개종한 소수의 공동체도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 침례교 및 오순절 교회는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특히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전도 활동을 할 때 빈번히 괴롭힘과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들의 성장은 대부분 역사적인 교회에서 옮겨온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루어진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 억압과 민족-종교적 적대감이 혼합된 상황

파키스탄에는 수십 개의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들이 존재한다. 점점 더 많은 정부 자문 기관들이 이슬람 학자들로 구성되어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천 개의 마드라사(이슬람 학교)가 정부의 자금 출처나 교육 내용에 대한 감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신성 모독법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는 죽어야 한다고 믿는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위협받는다. 금지된 급진 단체들은 종종 해체되지 않고, 재브랜딩하거나 온라인으로 이동하거나 기존 단체와 합병된다. 종교적 감정과 그로 인한 폭력은 쉽게 일어나며, 특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8월 자란왈라에서 발생한 폭력이 그 예이다.

파키스탄은 민족적 분열로 고통받고 있다. 발루치스탄 주와 신드 중부 지역은 국가 당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종교적 소수자들은 종교적 이유와 지배 민족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순하게 여겨진다.

조직적인 부패와 범죄

정치, 사법 시스템 및 군대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 조직 범죄는 도시 및 부족 지역에서 큰 문제이며, 종종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 카라치에서는 갱단, 갈취범 및 마피아가 모두 풍경의 일부이며, 영향력 있는 연결로 인해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다. 강제 노동은 오래된 형태의 노예제이지

만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농촌 지역의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자들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불만을 등록할 법적 방법이 없다. 부유한 지주들은 지역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이 시스템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토지 강탈도 발생하며, 교회가 수용되고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다.

독재적 편집증

현재 정부는 축출된 총리 칸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대중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지만, 모든 정부는 부패 혐의, 점점 더 단호해지는 급진 단체들, 그리고 독립적인 강력한 군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쉽게 정치적 희생양이 된다. 그들은 정부와 군대에 의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매받거나, 이익이 된다면 차별받을 수 있다. 군대는 일부 급진 단체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군대 정책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수적 피해로 간주된다. 이러한 교회 대표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만,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만이 매우 제한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제한에 따르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더 많이 행사하려는 다른 기독교 교단(주로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개신교인)을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데 자주 사용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소녀들이 납치, 강간, 강제 개종 및 납치범과의 "결혼"을 강요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에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은 미성년 소녀들을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된다. 많은 가족들은 다시는 그들의 소녀들을 보지 못하며, 당국은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거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또한 벽돌 공장과 같은 채무와 강제 노동의 악순환에 갇혀 있으며, 이 맥락에서 성폭력에 추가로 노출될 수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업/직업/일 접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 결혼
- 표적 유혹
- 인신매매
- 폭력 - 사망, 신체적, 심리적, 성적

남성

기독교 남성들은 신성모독 혐의, 재산 파괴, 투옥, 구타 및 처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기독교 소년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기독교 남성들은 종종 낮은 지위의 직업을 강요받으며, 불순하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종종 "추라"라는 경멸적인 단어로 불리며, 이는 "더러운"을 의미한다. 기독교 중산층도 존재하며, 모두가 낮은 지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과 사회적 열등감이 만연해 있다. 남성과 소년들은 또한 강제 노동의 악순환에 갇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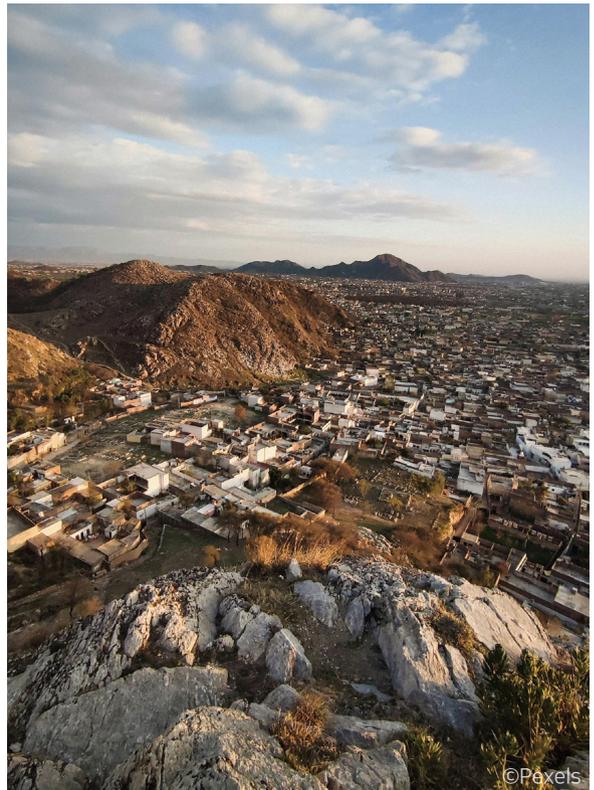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사업/직업/일 접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허위 혐의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사망, 신체적, 심리적, 성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8	87
2024	7	87
2023	7	86
2022	8	87
2021	5	88

기독교인의 전반적인 상황은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매우 암울하다. 평균 압력은 특히 공동체 생활 영역에서의 압력 증가로 인해 약간 상승했다. 폭력도 0.4포인트 증가했으며(점수를 매기기 위해 2025년 WWL에서는 3건의 살인 사건을, 2024년 WWL에서는 2건의 살인 사건을 집계했다). 확인된 살인 및 교회 공격 사례를 얻기 어려워 폭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가 상당히 깊이 지하화되어 있어 탈레반 당국이 기독교의 눈에 띄는 표현을 단속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당국이 교회를 '분쇄'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3월 17일: 편자브 주 페이살라바드 지역의 사파이어 마키 웨딩홀 앞에서 싱크홀과 하수도를 청소하던 두 명의 기독교 하수도 작업자가 사망했다.
- 2024년 4월 13일: 라호르에서 13세 기독교 소년이 개종을 거부한 후 경비원에 의해 독살 시도로 알 수 없는 물질을 삼키도록 강요받았다.

월드와치리포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	강제 결혼한 기독교인	사유재산이 몰수되거나 손상된 기독교인
2025	14	40	100*	1000*
2024	14	40	100*	10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에 기반한 폭력의 일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역학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상징적인 수치(10, 100 또는 1000)가 제공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10,000, 100,000* 및 1,000,000*과 같은 상징적인 숫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법으로 인해 무슬림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페이스북 게시물조차 이슬람 가치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한 국가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고 있으며, 기독교 목사와 부모들은 젊은이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인 사용을 넘어서는 기독교 자료를 소지하는 것이 위험하다.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상징을 표시하거나 기독교 이름을 가지는 것은 차별이나 재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십자가를 착용한 기독교인들이 길거리나 교통, 직장에서 침을 뱉거나 공격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족 영역

작은 마을과 외딴 마을에서 기독교 자녀들은 지역 마드라사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독교 교육은 일요일 예배로 제한된다.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가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자녀들이 이슬람으로 "돌아오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를 이슬람 행사

에 보내고 아랍어를 가르쳐서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압력을 받는다. 이는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강제 개종에 취약하게 만든다. 학교에서 기독교 자녀들은 무슬림 급우들과 같은 식수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음용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주 괴롭힘을 당하며, 많은 경우 화장실 청소나 바닥 청소를 하도록 요구받는데, 이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청소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인들이 하층 계급 출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급 고려 사항에서도 기인한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을 더욱 이슬람화하며,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가르친다. 이 정책은 기독교 가정에 해를 끼치고 있다.

공동체 영역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도 지역 판차야트(마을 의회)에 불려가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지 설명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일도록 요구받는다. COVID-19 위기 동안,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은 식량 배급을 이용해 개종을 강요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슬람 신조를 암송한 기독교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많은 젊은이들이 이를 따랐고, 다른 이들은 굶어 죽

거나 자살했다). 동시에 기독교 간호사들은 감염 병동의 최전선에서 일하도록 요청받았다. 직장에서 기독교 인들에 대한 압력은 종종 너무 커서 그들은 개종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직장을 바꿔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자주 청소나 물 나르기나 같은 허드렛일을 강요받는다. 좋은 예로, 정부 부문에서 소수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5% 할당제가 있다. 전체 공석 중 43%가 소수자에게 할당되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소수자를 위한 30,000개 이상의 직책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불결하다고 여겨지며, 그들의 공동 시설 사용은 무슬림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카스트 제도의 유산이다.

국가 영역

파키스탄은 1973년에 이슬람 헌법을 채택하고, 민법에 샤리아 법을 도입했다. 최근의 이슬람화 과정은 1986년에 도입된 신성모독법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소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종종 개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상원은 형벌을 3년에서 10년으로 증가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독교인들은 정치 분야에서 대표성이 낮아 그들의 견해가 종종 무시된다. 정치인들은 소수 종교 소녀들을 납치 및 강제 개종/결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부정한다.

교회 영역

교회 활동은 감시되고 있다. 당국은 보안 요원을 제공하지만, 이들은 또한 듣고, 보고하며,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에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의 교회 보호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격이 발생하여 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 소수자의 가장 눈에 띄는 대표자로서 괴롭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강력히 반대되므로, 교회가 개종자를 공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위험하다. 억압받는 소수자를 위한 옹호는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국제 조약 하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 (CAT)
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파키스탄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정기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국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의 압력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음 (ICCPR 제18조)
-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 강간, 집단 강간 당함 (ICCPR 제7조)
- 기독교 소녀들이 납치범과 강제 결혼하고 강제로 개종 당함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 기독교 소녀들이 노예 노동과 성 매매로 인신매매 당함 (CRC 제34조 및 ICCPR 제8조)
-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 혐의로 허위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음 (ICCPR 제19조)
-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불명예스럽고" "낮은" 직업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됨 (ICCPR 제26조 및 ICESCR 제11조)
-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으며 고등 교육 및 공공 고용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ICCPR 제26조)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종교적 소수자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종교 소수자 공동체 대표들은 정부가 사회적 차별과 방치로부터 그들의 구성원을 일관되게 보호하지 않았으며, 기독교인, 힌두교도, 시크교도, 아흐마디아 무슬림에 대한 공식적인 차별이 다양한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며, 아흐마디아 무슬림들이 가장 나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반대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최종성을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비정부기구(NGO) 사회 정의 센터(CSJ)에 따르면, 올해 329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중 75%는 무슬림, 20%는 아흐마디아 무슬림, 3.3%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무장한 종파 그룹은 하자라 공동체를 포함한 시아파 무슬림을 표적으로 삼는다. 무신론자들을 위한 법적 조항은 없으며, 그들은 신성모독법의 타깃이 되고 있다.

오픈도어의 파키스탄 사역

오픈 도어는 파트너 교회인 희망 네트워크를 통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